다이와보 - 잠자는 천연섬유 소재 재개발

다이와보는 일찍이 헴프(hemp : 大麻)와 케나프(kenaf : 洋麻) 등의 식물성 천연소재로 신상품을 개발한 바 있었는데, 이들 신상품의 수요개발이 부진하여 한동안 유명무실한 상태로 지속되다가, 최근 소비자들이 천연섬유의 가치를 재평가해 주는 경향이 생겨, 이들 소재가 부진하였던 원인을 규명하여 보완하면서 재개발하여 되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들의 특수한 원료를 사용한 소재는 방적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다이와보 머티어리얼즈의 와까야마 공장은 약 1만추의 OE 정방기가 있는데, 이들 OE 정방기로는 이들 원료의 혼방이 링 정방기보다 쉬울 것으로 보고 링 정방기보다도 혼방율을 높여 재개발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당초에는 50% 혼방율도 가능하기는 하였으나 생산효율이 너무 안 올라가서 지금은 10 30% 혼방 수준에서 방적하고 있다.

헴프를 혼방한 소재는 초기에는 50% 혼방으로 생산하였으나, 효율관계로 현재는 30% 혼방 수준으로 개발하고 있다. 생산효율이 좋지 않아 생산을 중단한 일도 있었는데, 판매측으로부터 이 혼방사를 강력하게 요청하여 혼방율을 낮추어 다시 생산을 시작하였다.

케나프 혼방소재도 초기에는 40% 혼방으로 시작하였으나 헴프의 경우와 같이 지금은 20% 정도의 혼방으로 생산될 예정이다. 또한 페루가 원산지로 되어 있는 “아스페로” 면의 경우는 면섬유가 굵어 방적이 쉽지 않아 “효율을 떨어뜨리면 ‘아스페로’ 면의 장점을 살리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아스페로 면 100%로 다시 개발할 예정이다.